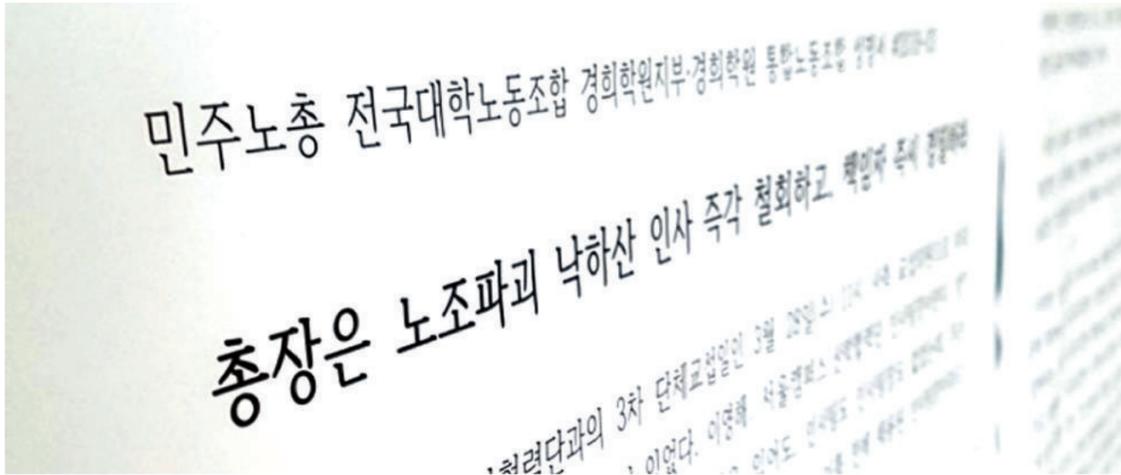


보도

산단 인사팀장 특채 ‘논란거리’로



이근한 기자 dlrmsgsk21@khu.ac.kr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경희학원노조)은 대자보를 통해 우리학교 산학협력단(산단)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3월 30일 게시한 대자보에서 경희학원노조는 “3차 단체교섭 때 미리 통보받지 못한 낯선 인물이 앉아 있었다”며 “12년간 노무사로 일했다는 인사팀장이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서 “정식 공고도 없이 특채로 이뤄진 이번 인사는 어떤 ‘합당한 이유’를 가졌기에 1주일 만에 이뤄진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경희학원노조는 “인사팀장을 며칠 만에 이렇게 무리하게 낙하산으로 채용한 사유는 바로 노동 조건 개선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희학원노조는 해당 노무사의 인사 과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뤄진 산단 자체 인사위원회”라며 “특채된 전문 노무사는 산단 내 직원들의 노동조건을 옥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산단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총장에게 산단장의 노조파괴 공작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희학원노조 “노무사 선임은 대화없이 법대로 하자는 뜻”

경희학원노조가 대자보에서 중점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노사 간의 단협 자리에 노무사가 위원으로 위임된 것’과 ‘낙하산 인사’로 크게 두 가지이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 박경규 지부장은 “단체협상은 노사가

모여 서로 대화와 화합을 하는 과정이다”며 “이 취지 속에서 사측에서 노무사를 교섭위원회에 세우는 것은 법대로 하자는 의도이며 대화의 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지부장은 “지난 30년 동안 기존 경희대학교 노조와 경희학원 간에 교섭에서 노무사가 등장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측 교섭위원회로 참여했던 서울캠 산단 경영지원실 안준철 실장은 노무사를 교섭위원회에 세운 이유를 “3차 단협에 앞선 두 차례의 단협에서 노사 문제를 대화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됐다”며 “노조와의 협상을 위해서는 노사 대화의 전문가가 단협에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 또한 학교에서 나온 파견직으로, 직원 노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며 “경희학원노조 측에서도 직원 노조에 속한 직원과 단체협상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며 인사를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경희학원노조가 ‘낙하산 인사’라고 제기하는 대상인 서울캠 산단 경영지원실 인사팀 이영해 팀장은 “노조 측에서 교섭위원을 내부적으로 위임 하듯이 사측에서도 교섭위원을 내부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며 “인사팀장이 교섭위원으로 위임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고 밝혔다.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박 지부장은 “아무리 작은 법인이라 해도 정규직 한 명을 2-3일 만에 특채로 뽑는 것은 상식선에서 무리한 채용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것은 채용비리이자 단협에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서둘러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지부장은 “인사위원회 구성원을 결정함에 노조와 사측의 동등 구성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사측으로만 구성된 인

사위원회가 특채를 심의·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관례를 벗어난 행보라고 지적했다. 경희대학교 산단의 취업규칙 5조 1항에는 공개채용 외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

이에 안 실장은 “특채를 최대한 서두른 것은 맞다”며 “노사 간의 대화에 전문가가 시급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안 실장은 “3차 단협 전까지 내부에 노사 전문가 없이 혼자서 노조 측의 요구를 처리했다”며 “혼자서 본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노조 측의 요구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특채를 서두른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 “전문가 전무해 특채 실시 합법 절차도 지켜”

또한 공채가 아닌 특채를 택한 이유에 대해 안 실장은 “공개채용을 해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이쪽 분야는 직장을 잠시 경험을 쌓는 곳으로 보고 금방 관두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공개채용까지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급박했다”고 답변했다.

노조 측의 이번 인사의 인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이 팀장은 “노조가 주장하는 노사 동등의 인사위원회 구조는 경희학원과 기존 노조 간에 체결된 협약”이라며 “이를 법인이 다른 산단 측에게도 곧바로 동일하게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학원노조는 2017년 11월에 출범한 노조로 현재까지 산단과 4차례 단협을 진행했다.

총여, 결국 존폐논의 대상으로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국제】 대학가에 꾸준히 제기 됐던 총여학생회(총여) 폐지 논란이 우리학교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결국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제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지난 3월 28일 총여 존폐 결정에 관한 안건을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중운위는 총여 폐지를 포함한 국제캠 학생회 회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제캠 총학 김효형(일본어학 2011) 회장은 “현재 ‘개정안 발의’와 ‘학생총투표 시행’ 모두를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여 존폐 결정에 관한 안건은 김상현(응용물리학 2013) 전 총여(28대 2017) 부회장이 직접 제청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4일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부회장은 “존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총여의 정체성에 대한 이견이 학생들 사이에 부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여를 폐지하고 총학생회(총학) 내부 기구가 학내 성 인권 문제를 대신 담당하는 것에 대한 학생 의견을 학생총투표를 통해 알아봐야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김 전 부회장은 현재 총여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올해 총학 재정에선 처장과 총여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했지만 지난 3월 총여 재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재정예산처장 직을 사퇴한 상태다. 올해 1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이어오고 있는 총여는 예산 집행도 정지됐다.

선거 무산사태에 대해 김 전 부회장은 “이제 마냥 재선거에 모든 기대를 쏟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두 번의 선거에서 후보자 미등록 사태가 벌어졌다”며 “학내 성 인권문제를 담당해야 하는 총여가 공백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결국 이는 학생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재선거를 다시 치루는 것보다 총여와 총학 중 누가 학내 성 인권 보장의 역할을 도맡아야 할지 학생들이 직접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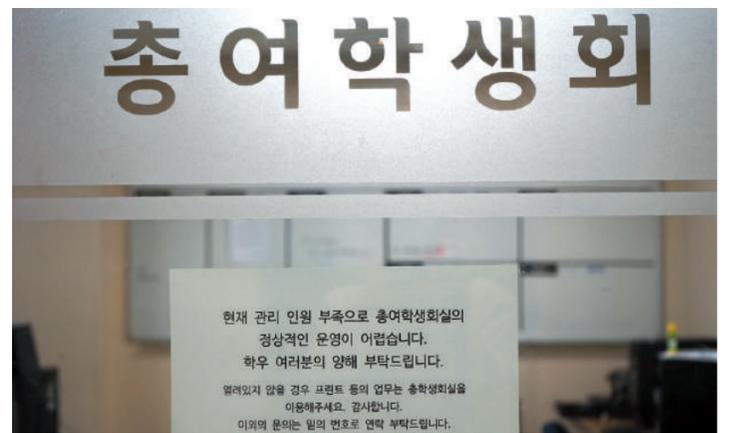
한편 총학은 총여 부재 상황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총학은 존폐 기로에 선 총여를 대신해 학내 성 인권 문제를 다룰 ‘성평등인권위원회(성평등위)’를 총학 산하 기구로 임시 설립했다. 지난 4일 중운위도 총여 존폐가 결정되기 전까지 임시 기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총학, 성평등위로 총여 공백 극복할 것

국제캠 총학 김효형(일본어학 2011) 회장은 “총여 공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평등위가 총여 사업을 임시로 집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는 총여 존폐가 결정되기 전까지 학내 성 인권 신장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평등위는 시험기간 새벽 고양이버스 운영, 화장실 물레카메라 탐지 및 예방 사업, 남녀 휴게실 관리 등 기존 총여학생회의 사업들을 도맡았다. 성 인권 명사 초청 특강 등 일부 사업은 그 규모를 확장해 추진할 계획이다.

성평등위 위원장에는 올해 총학 대외처장을 맡고 있는 최지현(프랑스어학 2015) 씨와 작년 총여 집행위원장이었던 서정유(전자공학 2012) 씨가 선임됐다. 최 위원장은 “성평등위를 신중하게 꾸려가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 또한 “학내 모든 성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면에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어 ·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접수기간
 ■ 정규 등록 기간: 4. 9. (월) ~ 4. 27. (금) 16:00 까지
 ■ 추가 등록 기간: 4. 30. (월) ~ 5. 4. (금) 16:00 까지

강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4. 30. (월) ~ 6. 8. (금)

강의시간표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30-19:50 (월, 수, 목)			
	레벨	Beginning / Low Intermediate / Intermediate / Advanced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영어 레벨업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오후반 18:30-20:00 (화)		
	레벨	Ted Talk	Academic Writing Workshop	Screen English	Easy Book Club	
일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 초급2 / 초급3 / 중급1 / 고급1 / 고급2	초급1	초급2	초급3	중급1
스페인어	시간	오후반 18:00-19:20 (수, 목)		오후반 19:30-20:50 (수, 목)		오후반 18:00-20:00 (금)
	레벨	초급1		초급2		Discussion and Debate
프랑스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2		초급3		
독일어	시간	오후반 17:30-18:50 (화, 목)		오후반 19:00-20:2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이탈리아어	시간	오후반 19:00-20:30 (화, 목)		오후반 17:30-18:5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Level Test
 ■ 영어회화 : 4. 25. (수), 4. 26. (목) 17:30
 ■ 일본어회화 : 4. 25. (수) 17:15
 ■ 중국어회화 : 4. 25. (수) 17:30

Sample Lecture
 ■ 영어/중국어 4.25.(수) 17:15 ※샘플강의는 강좌신청과 상관없이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Tel. 02) 961-0081~82 http://www.iie.ac.kr

연구학습지원 메일링 서비스 안내

연구학습지원 가이드 2018. 04

1. 해외 주간지 제공하는 Flipster 서비스 개시

2. 연구 주제 분석을 위한 Web of Science & JCR 기초 안내서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연구학습지원 메일링’ 서비스입니다. 연구 및 학습에 필요한 학술DB 안내, 논문 작성에 유용한 학술정보와 다양한 서비스, 연구 동향 자료 등을 소개합니다. 한 학기 2회, 연중 4회 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연구학습지원 가이드’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구학습지원 가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libguides.khu.ac.kr/c.php?g=783342&p=5612261>

■ 문의: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주제정보팀
 (02-961-9285 / khds3016@khu.ac.kr)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